

# 한국의 가족문화: 가부장적(家父長的) 구조에서 가정폭력과 목회상담자의 역할

김 태 수 교수  
(D.Min., 천안대학교)

## 국문초록

오늘날 한국의 가족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후유증도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최근의 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평소 술에 취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한 집안의 가장이 부인에게 목이 졸려 살해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남성은 직업이 없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가족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은 어린 아이들이 먹으라고 약간의 고기를 사다가 집에 두었는데, 남편이 그 고기를 술로 바꾸어 먹었다.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한 아내는 급기야 남편을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의 가족문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필자는 본 논고를 통하여 한국의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인 제목은 “한국의 가족문화: 가부장적(家父長的) 구조에서 가정폭력과 목회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하였다. 제2장 일반적 고찰에서는 가정폭력의 정의와 범주,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사례를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목회상담자의 다양한 역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회상담자의 역할로써는 상담자로서의 카운슬러, 치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치유자(healer), 가르침을 수행하는 교사,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산업화, 국제화 그리고 정보화의 현대사회속에서 가족관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가부장적 가족구조 하에서 가장이 자의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삶의 질(質)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주제는 다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중심단어** :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부폭력, 가부장제도, 목회상담.

## I. 여는 글

가정폭력과 관련된 조사 자료가 많지만 비교적 최근자료에 의하면, 15-64세 기혼부인이 있는 가구의 30.0%가 1년 사이에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부부폭력 7.4%, 아동학대 24.7%,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 0.1%, 기타 가족원간의 학대나 폭력은 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sup>

또 다른 논문의 설문지 조사에 따르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2.2%, 지난 1년(1983년 기준) 동안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14%였으며, 구타당하는 횟수는 적어도 한 달에 1회 이상이며 거의 매주 구타당하는 가정주부들이 100명 가운데 1명이라고 한다.<sup>2)</sup>

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부인이나 어린자녀들 같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필자는 본 논고를 통하여 한국의 가정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제2장 일반적 고찰에서는 가정폭력의 정의와 범주,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사례를 다루어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목회상담자의 다양한 역할들을 조명해 보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 II. 펴는 글

### 1.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 가정폭력의 정의와 범주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의 정의와 관련하여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협의적 의미에서 김병주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간의 갈등양

상이 폭력성을 띠어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라고 정의를 내린다.<sup>3)</sup> 또한 어떤 학자는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광의적 의미에서 강경호는 “가정폭력이란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sup>5)</sup> 그런데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폭력으로 표출되어 국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정의한다면, “국가가 개입할 정도가 아니라면 폭력이 아닌 말인가?”라는 의구심을 낳게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범주와 관련하여 김병주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정도의 상황이고, 강경호의 주장에 의하면,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전부 포괄하여 그 범주가 대단히 넓다. 가정폭력의 범주와 관련하여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본다면, 가정폭력의 범위는 가족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육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그리고 언어적 폭력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육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의 형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신적 학대와 언어적 폭력도 가정폭력의 중요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원인은 다양하게 많겠지만 한국의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정구조는 가정폭력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 가부장적 가정구조는 한국가정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가정구조 하에서 가장(家長)은 가장으로서 권리인 가부장권(家父長權)을 행사하려고 한다. 가부장권이란 외부적으로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권’과 가족구성원들을 통솔하는 ‘감독권’ 그리고 가족의 재산을 관할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 또한 이 권리들을 가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가부장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6)</sup>

이런 가부장적 가정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가정안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왜곡(歪曲)되기 쉽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가장의 일방적인 의도와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정들의 경우 이런 현상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가정폭력의 원인과 관련하여 김병주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다양한 발생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원인은 가정폭력 발생원인의 복잡성이다.<sup>7)</sup> 여기에는 가정구조의 이중성(二重性)과 가정의 갈등유발적 조건이 있다. 가정구조의 이중성을 설명하자면, 가정이란 사랑이라는 정서적 측면과 혼인이라는 법적 측면의 이중적 성격이 가정갈등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가정의 갈등유발적 조건과 연관시켜 Gelles는 위협에 노출된 시간, 활동과 이해관심의 범위, 관여의 강도, 연령과 성차(性差), 귀속지위, 스트레스(stress)와 같은 다양한 사항들을 갈등유발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원인은 한국의 폭력문화이다.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은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훈육방법으로 빈번하게 폭력을 사용하며, 아직은 국가의 간섭이 거의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가정폭력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 한국의 폭력문화를 조장하는 다른 요소는 국가가 형법(刑法)의 보장적 과제보다는 보호적 과제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점이다. 국가폭력의 경직된 행사는 범죄행위자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잠재적 범죄자나 일반시민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기 보다는 폭력과 같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셋째 원인은 가부장적 가정구조와 성역할(性役割) 태도이다.<sup>8)</sup> 한국가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부장적 가정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은 가정안에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고 의사결정이 가장의 일방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넷째 원인은 부부의 경제적 불평등이다.<sup>9)</sup> 결혼한 부부의 경제적 불평등이나 또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거나 전적으로 예측되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기혼여성들은 가정의 가부장적 지배구조에서 외부활동에 상당히 제한을 받으면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원인은 갈등해결 방법의 미숙이다.<sup>10)</sup>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가족 구조는 의사소통의 부족과 의사결정의 왜곡이나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구성원들은 문제점이나 불만을 대화나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훈련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점은 가해자나 다른 가족구성원인 피해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원인은 한국적 음주문화이다.<sup>11)</sup> 한국사회의 음주(飲酒)행태도 가정폭력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황금만능주의 풍조와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각종 단체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술집을 찾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인들이 음주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원래 음주는 대화, 여흥, 어색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축매제로 애용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음주가 한풀이나 화풀이의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고,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행사의 예비단계로써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 3) 가정폭력의 과정과 결과(영향)

가정폭력의 과정에 대하여 Lenore Walker는 폭력순환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sup>12)</sup> 제1단계는 긴장의 고조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스트레스 자극과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남편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불만을 아내에게 토로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제2단계는 격렬한 폭력적 구타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축적되었던 긴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사랑을 주고받는 통회 또는 후회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격렬한 폭발 후에 진정된 시기가 온다. 이 시기에는 적어도 폭력이 재발할 때까지 긴장이 풀어진다. 그리고 후회의 단계는 남편과 아내 상호간의 관계유지를 강화시킨다.

가정폭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강경호는 정현숙과 유계숙이 주장하는 상승기, 폭발기 그리고 하강기의 3단계를 인용한다.<sup>13)</sup> 먼저, 상승기에는 부부 상호 간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부부갈등이 증가하며 분노가 증가하는 시기(時期)이다. 다음으로, 폭발기에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폭

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하강기에는 서로 사과하고 선물공세를 하며 애정표현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기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가족치료를 통하여 부부폭력의 주기를 분석하고 중간과정인 폭발기를 제거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폭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면 약 다섯 가지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sup>14)</sup> 첫째,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이 있다. 신체적 영향은 골절, 멍듦, 화상, 베임, 뇌 손상과 같은 것들이다. 심리적 영향은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의 상실, 무력감,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의 상실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작업수행능력의 저하, 결근이나 실직, 배우자의 통제에 따른 고립과 같은 것들이다.

둘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여기서 신체적 영향은 부모들의 싸움과정에서 다치거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 어머니가 자녀들을 적절히 돌보지 못하므로 방임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어머니가 유산한다면 태아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것들이다. 심리적 영향은 불안, 아버지 에 대한 사랑이 불안 심지어 증오로 바뀔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으며 공격적이거나 의기소침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 사회적 영향으로는 가출하여 문제를 일으키거나 심각한 성인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자신들의 결혼에서 폭력이 반복되어 폭력의 세대전이가 되기 쉽다.

셋째, 가족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생활이 불안할 수 있고, 폭력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폭력이 위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이 해체됨으로써 사회가 불안정하고 사회문제가 야기되기 쉽다. 또한 피해자가 노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며, 의료적 치료, 그리고 경찰이나 법원, 복지 서비스 등의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

#### 4) 가정폭력의 사례

사례 1: 다음의 사례는 A라는 여성이 처녀시절 간호사로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원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살아가던 중 발생한 가정폭력 사례이다.<sup>15)</sup> 남편은 성격이 완벽주의자였고 회사안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어릴 때 남편은 계모 밑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여 열등감이 많았고 돈에 대하여 무척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편은 늘 부정적이고 가족들에게 비판적이었는데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트집을 잡아 아내를 폭행하였다. 어느 일요일 점심에 남편이 아들 둘과 목욕을 갔다가 올테니 횡거리를 사서 점심을 준비하라고 말한 후 나갔다.

내담자는 서둘러 시장에 가서 횡감을 고르고 장만을 하는데 그날따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한다. 집에 와보니 열쇠를 안 가지고 간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동안 추운 밖에서 내담자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머리끝까지 성이 난 남편은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내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구타를 시작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신고를 받고 방문한 경찰관에게 남편은 “내가 이 집 가장인데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소”라고 대응하였다. 그리고 내담자 뿐만 아니라, 신고한 아들에게까지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후 내담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 상담원교육을 이수하고 가정폭력 상담원으로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문제에 대처하는 힘을 길러갔고 폭력사이클을 탈피하여 부부 상호작용을 조금씩 다르게 하게 되었다. 지금은 남편도 가정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고, 요즘은 자신의 폭력성을 인정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간히 다니며 가정에서 평등하고 평화로운 부부관계를 위한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사례 2: 다음의 사례는 필자가 최근 K라는 대학생을 상담한 사례이다. 이 학생은 만학도이며 그녀의 부친은 현재 연세가 72세이다. 시골출신이지만 두뇌가 우수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주 전근을 다녔는데, 성격은 불같이 급하다고 한다. 그녀는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가끔씩 들어오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여러 여자들을 집에 데려다 자면서 외도를 하였기 때문이다. 중3 시절에 이미 세 번째 여자를 보게 되었고, 부친의 행패로 그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 학생이 사춘기에 접어든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이혼이 아니라 강요된 일방적 이혼이었다. 그녀의 부친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모친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이혼도장을 받아냈고, 기독교인인 모친은 딸을 만나지도 못한 채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다고 한다.

가부장적 집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그 딸은 34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친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부친의 집에 찾아갔다. 16년 만에 만나보는 아버지여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 종종 방문하곤 하였다. 그런데 동거하는 여자가 딸이 찾아오는 것이 싫다고 이혼을 요구한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친아버지는 딸에게 언어폭력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일본에 계신 모친이 사기를 당하여 빚을 지고, 가게를 팔고 도해결이 안 되어 야쿠자에게 감금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모친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이 학생은 운영하던 가게를 팔고 아파트를 팔아서 전(全)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 요즘은 학교 강의가 끝나자마자, 오후 4시 30분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벌고 있으며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만학도이기 때문에 두뇌회전이 느리고, 육체적 피곤이 누적되어 삶이 고단하다고 고백하였다.

필자가 만학도 여대생의 삶을 연령과 발달단계별로 언급한 이유는, 이 논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목회상담자의 역할에서 이 내용들을 근거로 이 학생의 삶을 분석해 보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학생의 경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최대 피해자이다.



## 2. 가정폭력에 대한 목회상담자의 역할

앞에서 필자는 가정폭력의 정의와 범주,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가정폭력의 사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목회상담자의 역할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목회상담자의 역할이 다양하게 많겠지만, 이 논고에서는 목회상담자의 역할을 카운슬러, 치유자, 교사, 그리고 종교지도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카운슬러(counselor)

목회상담에 있어서 상담자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하느냐에 따라 상담의 성패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도 상담의 일종이고, 내용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전문지식과, 역할 그리고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필자는 상담자의 태도에 중점을 두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사랑의 언어(言語)를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언어는 공감의 언어이며, 이해의 언어이다.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언어는 내담자를 현재의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empathy)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사랑의 언어이다. 말과 관련해, Thomas W. Robertson은 *Nightingale*이라는 작품에서 “말은 마음의 지표요, 거울이다.”라고 언급하였고, Democritus는 “말은 생명의 영상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이 사용하는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고, 언어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傾聽)해야 한다. 가정폭력 상담의 기본적인 특성은 내담자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다. 인내와 관련하여 신약성경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오래 참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μακροθυμει*(*macrossuimei*)는 능동태의 동사

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아주는 행위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이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아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어근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용어는 사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항상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였다. 즉, 인간관계에서의 인내에 대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속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경청이란 소극적으로 듣는 행위인 청취(hearing)가 아니라, 내담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듣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상담에 있어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경청의 종류들 가운데 ‘공감적 경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16)</sup> 공감적 경청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들을 때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의 세계에 몰입하여 내담자의 입장에서 서서, 다시 말하자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깊은 공감을 하고, 그것을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경청의 기법이다. 경청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경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분의 경청은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두 가지 방법(a two-way thing)으로 이루어진다.<sup>17)</sup>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towards people) 것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to the Father) 향하는 것이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친절하게 배려(配慮)해야 한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온유하라(χρηστέυται)는 것이다. 이 단어는 ‘낮아지다’ 또는 ‘순종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내적 자세를 의미한다. 유능한 상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를 친절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상담자라면 내담자를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넷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예의(禮儀)를 지켜야 한다. 가정폭력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하여 따뜻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예의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진지하게 대면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들에 대한 태도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예의는 성경의 여러곳에서 나타나며 인간의 귀감이 되신다. 하나의 사례(요 8:3-11)를 든다면, 예수께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 여인을 잡아온 군중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말을 사용하여 군중들을 모두 돌려 보내셨다. 그리고 여인과 홀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 간음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짐승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셨다. 군중들과는 대조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며, 사악한 죄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용서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우해 주셨다.

다섯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하나님의 진리(眞理)의 말씀으로 상담해야 한다. 진리는 헬라어로 *θεια(aletheia)*라는 단어이다. 이 진리는 모든 것들 위에 존재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진리라는 단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본문의 진리와도 동일하다.

가정폭력상담에서 목표로 삼는 내담자의 이상적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인격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상담에서 상담자는 해박한 전문 지식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담자에게 처방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2) 치유자(治癒者)

목회상담자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는 내담자를 먼저 치유(治癒)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내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치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군림하고 명령하는 가해자가 점차적으로 가족구성원을 섬기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목회상담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섬김과 관련하여 미국 AT&T 회사의 임원이었던 Greenleaf는 리더의 역할이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후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섬김의 리더쉽(servant leadership)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sup>18)</sup>

치유자로서 목회상담자의 역할을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사례에 적용시켜 본다면, 무엇보다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수많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어야 하겠다. 경청의 다양한 유형들 중에서도 공감적 경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감적 경청은 내담자의 말을 들을 때,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의 세계에 몰입하여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그것을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경청의 기법이다.<sup>19)</sup> 이 학생은 아동기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할 아버지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왔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모습이 싫어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남자를 어머니가 추천하여 결혼했으나, 이 남자는 도박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남자였다. 첫 남자와 이혼한 후(後), 두 번째 남자도 이미 아이들이 둘이나 있었으며 임신 7개월인데도 아이를 없애라고 강요하는 무책임한 남자였다. 결국 또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춘기의 예민한 나이에 자신을 인정사정 없이 버렸던 아버지를 잊지 못하여 16년 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간 딸을 심하게 냉대하고, 장례식에도 오지 말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들으면 언어폭력도 지나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상담자는 이 여대생의 말을 경청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눈물 없이 듣기 힘든 그녀의 인생여정을 깊이 공감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여대생의 경우, 아동기부터 지금까지 만났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상처만을 안겨준 존재들이었다. 이 여대생의 남성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는 상당히 왜곡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왜곡된 이미지는 다른 남성들에게 투사되기 쉽다.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도 남성적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한동안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다. 하나의 사례로 이 여대생은 5년 동안 생명과 같이 키웠던 아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떠나 술에 의지하면서 타락한 삶으로 전락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목회상담자는 단순한 심리학적 상담의 기법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녀가 새로운 각도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남성에게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전인적인 방법으로 도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시각을 조정시켜 주어야 한다. 치유자로서 상담자의 역할은 경청하고 공감하며 수용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삶의 시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목회상담자는 자신의 인격과 전문지식만으로는 온전한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 3) 교사(教師)

목회상담자의 역할 중에서 교사로서의 기능은 주로 인도(引導)와 가르침의 사역이다. 인도의 사역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내담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익한 열매가 맺히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는 사역이다. 인도의 기본적인 단계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내담자의 입장과 시각과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공감의 단계이다.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incarnation)하신 사건과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같이 걷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소외당한 계층의 사람들의 소리에 공감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동정(symathy)이 아니라, 참다운 공감(empathy)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인도의 사역을 여대생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선적으로 목회상담자는 그녀의 처절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 이야기를 경청하고 같이 울어주는 진정한 공감이 있어야 한다. 아동기부터 아버지에게서 학대받고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결혼한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된 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빼앗기고 가끔 초등학교에 찾아가 멀리서 지켜보아야만 하는 이 어머니의 눈물과 찢어지는 가슴의 고통을 누가 알겠는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회상담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이 여대생의

마음에 공감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자는 최선을 다하여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여대생이 직면하기에는 너무도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자는 도와주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또한, 외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연도(年度)에 장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빼앗긴 후(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떠나 술에 의지하는 타락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탱(sustaining)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상처를 치유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앙적 만남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목회상담자는 이 여대생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

한편으로 목회상담자의 가르침의 사역과 연관시켜 본다면, 상담자는 가정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된다. 우선, 가해자가 자아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어떤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지 자각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도 가정폭력의 상황이 유발되는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종교지도자(宗教指導者)

목회상담자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가능한 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버지나 오빠 또는 남자친구와 같은 남성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경우, 그런 남자의 이미지는 하나님께도 그대로 투사(投射)되어 영적인 관계가 왜곡되기 쉽다. 왜냐하면 대개 하나님의 이미지도 근엄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부장(家父長) 중심의 사회나 동양의 문화적 배경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아버지의 이미지는 흔히 군림하고 통제하며 심판하고 처벌을 가하는 이미지로 쉽게 연상된다. 이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께 적용된

다면, 그 하나님은 정의와 심판과 징계의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각인되기 쉽다. 그러나 성경전체를 고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미지만 가지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시다. 특히, 신약의 복음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모성적 어머니 이미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은 외식하는 종교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심판하셨지만, 생애의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와 같이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셨다. 이런 삶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죄인)의 화해를 위하여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 목회상담에 있어서 종교지도자는 부성적(父性的) 이미지보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공감해 주는 어머니와 같은 상담자가 되어야 상담의 효과가 클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사례 2의 여대생의 경우, 부친과 배우자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다. 그리고 아들은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서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 대상이었지만, 헤어지는 아픔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아들도 이 여대생 엄마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었다. 목회상담자는 이 여대생이 부친에게 받은 상처가 크지만 부친을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여대생 자신도 부친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부친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면, 딸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하여 용서를 구(求)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자각(自覺)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부친과 딸이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화해를 함으로써 서로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도록, 목회상담자는 상담을 통하여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목회상담자는 단순한 상담자가 아닌 종교지도자 또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 III. 달는 글

산업화되고 국제화된 현대사회속에서 가족관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가부장적 가족구조 하에서 가장이 자의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와 삶의 질(質)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부계(父系)혈통주의를 벗어나 양성(兩性)의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며 남녀가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과 재생산의 역할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성별 역할구조를 협동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sup>20)</sup>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가정폭력에 대한 최선의 방책(方策)은 가정폭력의 예방(豫防)이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가족구성원들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가정폭력이 대(代)를 이어서 세대 간에 전이(轉移)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가족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가정폭력이라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 강경호. 「가정폭력의 위기와 상담」. 서울: 한사랑가족상담연구소. 2003.  
 권영상의 10인. 「가정폭력 전문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 서울: 백산자료원. 2002.  
 김광일.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1997.  
 김태수. 「기독교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2.  
 유영주의 13인. 「가족학」. 서울: 하우. 1993.  
 이기춘외 5인. 「목회임상교육」. 서울: 감리교목회상담센터. 1998.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정현숙, 유계숙. 「가족관계」. 서울: 신정. 2001.  
최홍준, 송길원. 「가정사역 핸드북」. 경기: 기독교가정사역연구소. 1999.

---

[ 후주 ]

- 1) 김병주, 「한국의 가정폭력」(서울: 백산자료원, 2003), 40.  
김승권을 중심으로 한 연구조사(2000년)에 의하면 조사대상가구 13,429가구 중  
에서 15-64세 기혼부인들이 있는 10,592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1999년 6월-2000  
년 5월) 가족구성원간의 가정폭력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 내용은 신체적 학대  
및 폭력과 정서적 학대 및 폭력, 방임 등의 폭력유형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그  
발생을 및 빈도, 폭력유형, 폭력이유와 같은 항목이었다.
- 2) 김병주, 31.  
심재근의 조사는 1983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가정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조사와 동시에 '여성의 전화'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  
되었다. 설문지조사는 70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분포  
를 감안하여 응답자표본을 선정하였고, 상담자료는 상담 카드기록에 근거하여 특  
성에 따라 척도나 급간을 나누어 가급적 세분하였다.
- 3) 김병주, 15.
- 4) 권영상의 10인, 「가정폭력 전문상담」(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116.
- 5) 강경호, 「가정폭력의 위기와 상담」(서울: 한사랑가족상담연구소, 2003), 15.
- 6) 이광규, 「현대 한국가족의 이해」(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재인용
- 7) 김병주, 143-9.
- 8) 김병주, 157-68.
- 8) 김병주, 168-72.
- 9) 김병주, 173.
- 10) 김병주, 178.
- 11) 김병주, 180-2.
- 12) 강경호, 30-6.
- 13) 정현숙 · 유계숙, 「가족관계」, (서울: 신정, 2001), 481-2. 재인용
- 14) 권영상의 10인, 119-21.
- 15) 권영상의 10인, 297.
- 16) 이기춘외 5인, 「목회임상교육」(서울: 감리교목회상담센터, 1998), 77.
- 17) Duncan Buchanan, *The Counselling of Jesus* (Downers Grove: InterVarsity), 37.
- 18) Robert K. Greenleaf, *Servant Leadership* (New York: Paulist, 1977), 17.
- 19) 이기춘외 5인, 77-8.
- 2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5), 16.

【 Abstract 】

Korea's Family Culture: Domestic Violence in the Structure  
of Patriarch and Pastoral Counseling Role

Tae-Soo Kim  
(D.Min., Cheonan University)

According to a survey(June in 1999 - May in 2000) of domestic violence, 30 percent of married women who were (from) 15 to 64 years old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within a year. In the survey the rate of spouse's violence was 7.4%, children's maltreatment was 24.7% and parents' maltreatment by their sons and daughters was 0.1%. According to the above statistical data, there are various types of domestic violence and weak persons such as woman and child are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rough this thesis the writer dealt with the title of Korea's family culture: domestic violence in the structure of patriarch and pastoral counseling role. To deal with this issue the writer showed general investigation from various angles. In the second chapter the writer dealt with the following issue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domestic violence, the reason of domestic violence, the process and result of domestic violence and two case studies of domestic violence. In the third chapter the writer introduced various roles which a pastoral counselor can perform: counselor, healer, teacher, religious leader and so forth.

In the part of conclusion the writer emphasized that the best way concerning domestic violence is to prevent it in advance. Because it is the best way for domestic violence not to be used. However, if domestic violence is employed, (pastoral) counselor can counsel the offender and victims of it, heal them mentally as well as physically, and teach them through not merely continuous education but also appropriate programs.

**Kye words:** domestic violence, children's maltreatment, spouse's violence, patriarch system, pastoral counseling.